

# 전대후문 '디자인 거리' 조성 난항

## 방음벽 철거 공사 전남대 반대 '벽' 부딪쳐

### "면학분위기 해친다" ... 공사 수개월 지연

광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남대 후문 가로 조성 사업'이 시와 전남대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전남대 후문주변에 설치돼 있는 방음벽을 없앨 경우 소음 등에 따른 면학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한 전남대가 시에 대책을 요구하면서 디자인 안까지 마련된 상태에서 공사가 수개월째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초 32억 원을 투자해 올해 6월까지 전남대 후문 400m 길이의 방음벽을 철거하고 가로등, 버스승강장, 자전거 보관대 등 공공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디자인 명품거리로 조성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디자인업체와 시공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 2곳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선정하고 총괄

계획도 선입한 바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전남대 측에서 소음 피해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작공 기일이 차일피일 미뤄져 결국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남대에서 후문의 소음을 측정할 결과 58데시벨(dB)로, 법정기준인 55dB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음벽을 철거할 경우 면학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전남대가 요구하고 있는 수림벽 조성과 일부 건물에 대한 방음창 설치를 위해서는 추가로 수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이 사업이 설계·시공 일괄 공모방식으로 디자인업체와 시공사를 선정, 공사비가 추가될 경우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 양기

관의 합의 도출이 없을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대 한 관계자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방음벽을 철거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것일 뿐"이라며 "조만간 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와 전남대가 상호 협조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협의의 중요성을 충분히 하지 못해 수습여원이 투쟁할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전반적인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한 도시계획 전공 교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해당 기관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부각되는 문제점을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양 기관이 사업 추진을 서둘러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명품 가로를 조성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남대·서울대 등 로스쿨 인가 위법...취소는 불가"

#### 서울고법 판결

전남대에 이어 서울대와 이화여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한 인가 위법함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안영률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단국대학이 서울대 등 25개 대학의 로스쿨 인가를 취소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대와 이화여대, 경북대, 전남대 등 4개 대학에 대한 로스쿨 인가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 대학의 로스쿨 인가를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어긋나므로 취소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했으며 단국대에 대한 인가거부도 정당하다고

판했다.

재판부는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은 법학교육위원회 대상 학교에 재직하고 있다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비인가 대학과 정원을 심의·의결한 2008년 1월 15차 회의에 로스쿨을 신청한 서울대, 이화여대, 경북대, 전남대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심사기준과 현직조사·체점표 작성 등은 적법하며 서울대와 이대는 서울권역 대학 중 1·5위, 경북대와 전남대는 지방 권역 대학 중 1·2위로 평가돼 소속교수들이 회의에 관여하지 않았어도 인가받을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인가를 취소하고 다시 심의하는 것은 무의하다"고 밝혔다.

### 동신대 등록금 동결

#### 서울대도 동참

전남대와 조선대를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10개 대학이 2010학년도 등록금을 동결을 선언한 가운데 동신대도 등록금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동신대는 13일 재정위원회를 열어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으며,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가장 경제가 위축될 것을 감안해 DS장학금, 마일리지 장학금을 신설해 장학금을 작년보다 늘리고, 등록금 동결에 따른 예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건축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대도 이날 경기침체 여파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0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락 배달업체 위생 점검 13일 오전 광주 북구청 희망복지과 직원들과 아동위원회의원들이 양산동의 한 도시락 배달업체를 방문해 겨울방학 중 결식아동들에게 배달되는 도시락의 배달시간 준수와 일회용품 사용여부,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5·18 자유공원 '그때 그대로' 1980년 당시 모습 재현 '체험공간' 탈바꿈

### 영창 등에 실물 모형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 자유공원이 1980년 당시 모습을 재현한 체험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광주시는 5억원의 예산을 투입,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실물 모형으로 만든 헌병과 시민들을 영창, 상무대 법정 등에 배치하는 등 내부 전시시설을 갖춘 방침이다.

13일 시는 시청 회의실에서 '5·18 자유공원 전시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 회를 갖고, 5·18 관련자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 전시시설의 주제는 '함께 가는 광주, 5·18의 역사 속으로'이며, 재판과정과

### 야간 돌봄 유치원

#### 밤 10시까지 운영

교육과학기술부는 "심야까지 일하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고자 종일반 종료 후 2~3시간 연장 운영하는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 150곳을 3월부터 시범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오후 7시까지 각 유치원 종일반에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41분 해질 17시 42분 달돋이 06시 51분 달질 16시 45분

**눈길 조심하세요**  
가끔 구름이 많고 오전까지 곳에 따라 눈이 온 뒤 낮부터 그치겠다.

도시	기온
광주	흐리고 눈 -8/1℃
목포	흐리고 눈 -5/2℃
여수	맑음 -6/2℃
완도	흐리고 눈 -5/2℃
구례	흐리고 눈 -8/1℃
예남	흐리고 눈 -6/3℃
장흥	흐리고 눈 -6/3℃
고흥	맑음 -7/3℃
순천	맑음 -7/2℃
영광	흐리고 눈 -8/1℃
진도	흐리고 눈 -5/3℃
전주	흐리고 눈 -8/1℃
남원	흐리고 눈 -11/0℃
옥산도	흐리고 눈 -2/2℃

바다	풍향	파고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5~2.5m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5m	목포 01:11	06:42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0~2.0m	여수 09:02	02:1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5(금)	16(토)	17(일)	18(월)	19(화)	20(수)
날씨	☀	☀	☀	☀	☀	☁
최저/최고	-3/5	-4/6	-4/7	-3/9	0/10	3/11

## 노로바이러스 설사환자 급증

### 광주 보건환경연구원 "위생관리 철저"

최근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설사환자가 급증하면서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원이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연중 실시하는 급성설사질환 병원체 감시사업 검사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수집된 설사환자 가검물의 5% 미만(월 평균 200여 건 중 10건 미만)에서만 검출됐던 노로바이러스가 11월(102건 중 28건, 27.5%)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12월에는 46%(205건 중 96건)의 검출률을 보였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오염된 식물을 마시거나 가열하지 않은 조개, 굴 등을 섭취했을 때 감염되기 쉬우며,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또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이 감염된 경우 증상이 없었던 후에도 7일 정도 바이러스를 배출하므로 집단급식소 등에서 음식물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설사와 구토를 동반한 급성위장염을 일으키는데 건강한 성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2~3일 정도 계속된 뒤 경미해지지만 어린이나 노약자와 같이 면역력이 약한 경우 탈진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이상 기후 등의 원인으로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다"며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음식물은 항상 충분히 익혀 먹고, 깨끗한 물을 사용하며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www.khtr.com

**국제보청기**

본점 042-227-9940  
순천점 061-752-9940  
목포점 061-262-9200  
홍성점 062-227-9970  
석산점 063-851-2422